

5-11-2025 주일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에베소서 1:1-14

말씀제목: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방해 공작과 결말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택하시어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시기로 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자녀들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기쁨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그의 뜻의 신비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엡 1:10)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들이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받은 증거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Sealed)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엡 1:13-14)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구속 곧 죄사함의 증거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로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갈 2:20)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또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고후 13:5-6)

하늘과 땅에 대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탄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용하여 방해 공작을 지금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을 사람들을 자기 왕국으로 끌어들여 자신이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려는 착각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을 모방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만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영원히 자신과 함께 멸망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 마귀는 대 환란이 시작할 때에 자신이 기름부은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 장면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계 13:4-9)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 오는데 어린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계 13:11-15)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시는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 13:16-18)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계 12:7-12)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산채로 불못에 떨어져 심판 받게 되며, 마귀는 천년왕국이 끝난후 불못에서 심판 받아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